

장애의재해석 제5권 제2호

2024 Vol. 5, No. 2, 105 - 128

한국 SF 소설에서의 장애의 의미와 재현 양상 연구 : 천선란 소설을 중심으로

유창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천선란 SF 소설은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환경 문제, 우주를 향한 욕망과 상상력,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을 이야기하고 있다. 천선란의 작품은 비판적 휴머니즘의 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장애 인물을 주체적이고 전복적인 인물로 그려 장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편집 〈어떤 물질의 사랑〉, 〈노랜드〉와 장편 〈천개의 파랑〉을 중심으로 하여 장애 신체와 포스트 휴먼 간의 관계성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다. 천선란의 소설에서는 정상으로 인정받는 존재에서 벗어난 경계 밖 존재가 다수 등장한다. 이때 작가는 외계생명체, 인공지능, 로봇, 좀비, 신체 강화 인간, 복제 인간 등의 포스트휴먼 개체를 정상으로 간주되는 인간보다 우월하게 묘사한다. 아울러 천선란은 성, 장애를 비롯하여 여러 이유로 타자화된 인간 존재를 포스트휴먼 개체와 뒤섞어 놓는다. 포스트 휴먼과 접촉하고 연대하는 여성 및 장애 인물은 차별과 폭력적 사회 구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여 그들에게 가해진 사회적 편견을 극복한다.

이처럼 천선란의 SF소설은 정상의 범주에서 소외된 존재에게 전이되는 차별과 폭력의 재생산 과정을 포착해 내고 있다. 천선란의 소설에서 포스트휴먼이 된다는 것은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과 연대를 통해 확대된 공동체 의식을 역동적으로 실천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주제어: 장애, 여성, 비인간, 포스트 휴먼, 타자화, 공존과 공생, SF 소설

*동의대학교 문학인문교양학부 부교수

I. 들어가며

천선란은 장편소설 〈무너진 다리〉로 한국 SF 문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은 작가로 이름을 알렸으며 장편소설 〈천개의 파랑〉, 〈나인〉, 단편 소설집 〈노랜드〉, 〈어떤 물질의 사랑〉 등을 출간했다.¹⁾ 이 밖에도 그녀는 각종 SF 엔솔로지에 작품을 발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통해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²⁾ 천선란의 SF 소설은 미래 사회가 직면할 환경 문제를 화두로 제시하여 정상성의 경계 밖에 있는 타자들에게 가해지는 인간중심적인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천선란의 SF 소설에 나타난 장애의 재현 방식과 양상을 살펴 장애 신체 및 여성을 포함한 타자화된 존재 간의 연대와 전복적 행동을 유발하는 포스트휴먼적 사고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발전과 더불어 인공 보철, 유전자 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신체는 신기술과 접촉, 변이, 확장을 통해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사유가 필요하며 장애 신체에 대한 문제 역시 새롭게 제기되어야 한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인간 신체의 변화와 장애 신체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술 발전은 신체적 결핍을 보완하고 신체 기능을 강화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강화된 신체를 정상으로 그렇지 못한 신체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차별을 재생산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둘째, 정상성이 비정상을 재단하는 방식에도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장애를 재단하여 정상의 대척점에 배치하여 장애를 세계와 불화하거나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재현하는 한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SF 문학은 실현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중간 지대에 놓여 있다(Russ, 2020: 67). 또한 인간 존재와 지구 공간의 경계를 허문다는 점에서 SF는 장애인에 가해졌던 고정적 시선을 벗어나 새로운 사유를 가능케 하는 장르이기도 하다. SF 소설에 재현되는 각종 첨단 기술은 인간의 생명 연장의 욕망을 실현 시키면서 동시에 삶과 죽음의 문제, 혼종 개체의 정체성 문제, 종간 갈등과 공존 공생 등 다양한 갈등 상황을 유발한다. SF의 거장 Asimov(2008)는 소설집 〈아이로봇〉에서 인간과 기계의 결합과 공존에 대해 일찍이 주목하였다.³⁾ 소설 〈바이어리_대

1) 본 연구는 천선란 소설 가운데 단편집 〈노랜드〉와 〈어떤 물질의 사랑〉, 장편소설 〈천개의 파랑〉을 연구 범위로 하여 장애의 재현 양상과 포스트휴먼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2) 본 연구에서 언급하지 않은 천선란의 작품으로 장편 소설 〈나인〉, 〈랑과 나의 사막〉, 〈무너진 세계〉 등이 있다. 다른 작가들과 함께 기획한 〈슈퍼마이너리티 히어로〉, 〈SF보다〉, 〈우리는 이별을 떠나기로 했어〉 엔솔로지에도 작가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3) '바이어리-대도시 시장이 된 로봇'의 원 제목은 〈Evidence〉이며 1946년 9월에 발표되었다. 번역서 〈아이로봇〉에 함께 실린 다른 작품들 역시 1940년대 초반에 아이작 아시모프가 잡지에 발표하였던 단편 작품

도시의 시장이 된 로봇)에서 사고를 당한 인간 ‘바이어리’는 양전자 두뇌(인공지능)를 구해 자신을 대신해 세계에 로봇을 내보낸다. 로봇 ‘바이어리’는 로봇임을 숨기고 인간의 몸으로 살아간다. 변호사에서 시장, 지역 조정관(정치인)이 되어 인간과 뒤섞여 살다가 인간 ‘바이어리’의 생물학적인 죽음 이후 로봇 ‘바이어리’도 스스로를 분해하고 사라지게 된다. 한마디로 이 소설은 사고로 인해 장애를 얻게 되어 사회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인간 대신 인공지능 탑재 로봇이 사회적 역할을 대신한다는 이야기이다.

소설 속에서 ‘수잔’ 박사는 ‘바이어리’가 로봇임을 알고 있지만 로봇 공학의 3원칙이 가장 윤리적인 인간을 기반으로 구축된 것임을 들어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뿐 감시, 통제, 구분과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이처럼 ‘수잔’ 박사는 인간의 윤리와 로봇 공학 3원칙을 동일선상에 놓고 바라보며 인간의 우월성을 격하시켰다.⁴⁾ 인간/비인간 사이의 경계를 흔들어 놓는 ‘수잔’ 박사의 전복적 행위를 남성과 여성, 백인과 유색인, 장애와 비장애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내는 방식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정신과 신체의 자유로운 이동과 장애 신체를 대신하는 존재의 출현, 이러한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마인드업로딩 기술, 메타버스 세계의 실재화를 이제 실현 불가능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열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인류가 맞이할 융합적이고 다채로운 삶의 양식에 적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포스트휴먼적 사유의 핵심은 인간과 사물 사이의 우열, 차이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유를 바탕으로 미래에 발생할 새로운 삶의 양식을 재현하여 한국 SF 소설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작가로 최근 김보영, 김초엽, 배명훈, 윤이형, 천선란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과학 기술 발전의 세부적 영역을 문학적으로 구체화시켜 SF 서사를 개척하고 있다. SF 문학에 대한 선행연구는 근대의 인간중심주의와 차원을 달리하여 인간의 가치를 새롭게 성찰해 보고자 하는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다.⁵⁾ 이양숙(2020)은 인간과 비인간의 수평적 관계에 주목하여 SF 소설에 나타난 탈인간중심주의적인 태도를 분석하였다. 박인성(2020)은 SF 장르에서의 시공간의 특수한 형식을 살펴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소외현상을 조

이다.

- 4) 기술 발달은 인간의 정신활동을 물리적 법칙의 연속선상에 놓고 인간 지위의 우월성을 격하시켰다. 부르스매즐리시는 인간이 다른 존재들에 비해 특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배후에는 근본적인 불연속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인간과 기계 사이에는 단절된 경계가 없고 인간 정신을 설명하는 원리로 기계도 설명할 수 있다 하여 불연속의 해체를 주장한다. (신상규, 2014: 49~50).
- 5) 비판적 포스트휴먼적 입각해서 타자화된 여성과 비인간 간의 관계성에 주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서승희, 2019; 김미현, 2020; 김윤희, 서세림, 2024). 여성의 유목적 주체성의 의미를 밝힌 연구(박예은, 조미라, 2019), 인간과 기계의 공존 및 공진화의 양상을 추적한 연구(추혜진, 2020; 연남경, 2020)는 포스트 휴먼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여성 주체의 가능성을 도출해 냈다.

명하고 있다.

기술과 신체의 결합에 따른 신체 기능 강화 및 장애 신체 변화를 포스트휴먼적 사고로 확장시킨 논의로 허윤, 김윤정의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허윤(2021)은 김보영 소설에서의 여성, 장애, 로봇 신체에 가해지는 시선과 폭력의 문제점을 포스트휴먼적 입장에서 살펴 장애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을 추적해 내고 있다. 김윤정(2022)은 첨단 기술이 여성, 장애인, 비주류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여성 SF 소설이 장애 담론을 결합이 아닌 그 자체로 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김윤정(2021: 80)에 따르면 극복되어야 할 것은 신체가 아닌 장애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다. 기술 발전이 가져올 신체적 자율성과 독립성의 가치는 과대 평가되었으며 오히려 장애를 ‘정상화’하여 장애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여성 SF 문학은 장애를 보완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천선란 소설에 대한 연구는 작가의 대안적 상상력과 생태적 사유에 집중하여 포스트휴먼적 행위성의 의미를 밝혀내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이지연, 2023; 임지연, 2023). 천선란의 생태주의적 태도가 중국에는 종간의 경계 해체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기도 한다(진설아, 2022; 진선영, 2022; 김윤정, 2023). 이렇듯 천선란의 소설에 대한 연구자들의 접근 방식은 생태주의적 입장, 비판적 포스트휴먼적 입장을 기반으로 타자화된 존재간의 연대와 행위성에 주목하여 그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세계의 복원과 희망의 의미를 도출해 내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연구 성과들을 수용하면서 천선란 작품에서의 장애 이미지 재현 방식을 살피고 장애와 함께 배치되거나 접속하는 존재들의 혼종적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장애는 개인의 결핍과 결합으로 간주 되고 장애를 겪는 당사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여겨져 왔다. 장애를 만들어 내는 사회적 구조의 모순을 발견하고 포스트휴먼과 접속한 장애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 천선란의 소설에서 장애는 개인의 결핍이 아니며 소극적으로 재현되지도 않는다.

이런 점에서 천선란 소설은 장애에 대한 재해석을 이끌어 내는 장애학적인 의미가 있다. 천선란 SF 소설에서 과학기술은 장애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된다. 기술은 비정상화된 신체와 정상으로 간주 되는 신체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본고에서는 장애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허무는 작가의 서술 방식을 살펴 천선란 소설 속 장애 신체의 고유한 재현 방식과 포스트휴먼적 의미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즉, 작가가 타자화된 인물의 연대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설정한 서사적 장치는 무엇이며 장애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거부하는 태도가 구체적으로 재현되는 양상을 밝혀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천선란의 소설에 재현된 장애인의 정체성을 살피기 위해 비판적 포스트휴먼 개

념을 차용하였다. 천선란 소설에서 타자화된 인간, 동물, 로봇은 모두 불완전한 신체를 갖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은 이종간 친연성의 기반이 되고 서로를 뒤섞으며 연결시켜 놓는다. 주변화된 존재들이 상호 공감하고 서로의 취약성에 상호 응답하는 과정에 공감과 공존의 공동체를 향한 연대적 연결고리를 확고히 해 나간다. 이들은 취약한 몸을 교정하기보다 다름을 전제로 한 소통을 통해 서로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주변화된 신체를 적극적으로 재현해 낸다. 이종간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 위계성을 해체하며 장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한다. 이처럼 천선란의 소설은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횡단하는 혼종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단순히 증강이나 향상이 아닌 훼손과 변형, 도주를 통해 장애에 가해졌던 배제와 시혜의 서사를 극복하는 전복적인 양상을 보인다.

Braidotti(2015: 81)에 따르면 고전적 휴머니즘은 이상적, 객관적, 정상적인 동일성의 체계화된 기준으로 모든 타자를 평가, 통제하기에 인간의 죽음과 해체가 포스트휴먼으로 향하는 필수적인 경로라고 하였다. 보편적 인간으로 가치를 획득한 남성은 성차화된, 인종화된, 자연화된, 장애화된 타자들과 범주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것이 된다. 이때 포스트휴먼 주체는 수평적이며 연대적 관계 형성을 통해 인간의 위계적 질서의 죽음과 해체를 가한다. 포스트휴먼 주체의 관계적 능력은 인간종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인간의 형상을 하지 않은 모든 요소로 확장된다. 특히 Braidotti(2015: 23)는 여성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었기에 다른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다른 종에 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여성은 동물-되기, 지구-되기, 기계-되기에 있어서 남성 주체보다 유연하고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포스트휴먼 이론은 한국 SF 소설에 대한 해석의 지평을 새롭게 한다.

II. ‘비정상화된’ 존재의 ‘뒤섞임’을 통한 경계 해체

1. 자리 잃은 개체의 ‘뒤섞임’

천선란 소설에 등장하는 존재들은 경계선에 서 있다. 단편 소설 〈두 세계〉는 작가의 경계적 세계관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소설이다.⁶⁾ 〈두 세계〉에는 현실이라는 땅에 발을 붙이지

⁶⁾ 〈두 세계〉는 단편 소설집 〈노랜드〉에 수록되어 있다. 〈두 세계〉에서 ‘노랜드’는 가상현실 감각으로 소설을 읽는 시스템이다. 가상현실 창에 책 본문이 뜨고 독자가 책을 읽어 나가며 그 상황을 재생시켜 심도 있게 책을 읽을 수 있다. 등장인물은 인공지능화가 되었고 독자와 소통이 가능하다. ‘유라’는 노랜드 시스템을 설계한 프로그래머이자 운영자이다. ‘아락스’가 현실 세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신규영’이라는 인물의 육체

못하며 지구라는 행성에서의 탈출구를 찾다가 죽음을 선택한 ‘유진’, 인간에게만 허락된 현실 세계를 향해 책 속을 벗어난 AI 캐릭터 ‘아락스’가 등장한다. 이 둘은 모두 자신이 속한 공간에 적응하지 못한다. 인간은 현실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인공지능은 가상 공간에 적응하지 못한다. ‘유진’은 태어나는 순간 숨을 쉬지 않았고 말문이 늦게 트였으며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 유대 관계를 맺지 못했다. ‘유진’을 둘러싼 근거 없는 소문에는 항상 ‘귀신’, ‘원조 교제’, ‘이상한 신앙심’과 같은 수식어가 붙어 있었다. 학교 선생님들도 늘 ‘겉돌았다’라고 ‘유진’을 표현했다. 그러한 평가는 ‘유진’에게 붙어 있는 낙인을 떼놓지 못한다. ‘유진’의 차이를 개인에게 전가함으로써 교육 당국을 비롯한 사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장애는 낯선 세계에 거주하거나 자신이 거주하는 세계에 닳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심귀연, 김문정, 김창식, 2024: 218). 세계에 적응하지 못해 취약한 ‘유진’은 다르다는 이유로 세계로부터 이해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 ‘유진’은 이러한 낙인에서 벗어나 세계 밖으로 향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다. 한편, 책 속 공간에 얽매인 AI 캐릭터 ‘아락스’의 괴로움은 책 바깥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어떠한 AI 캐릭터도 플레이어의 세계를 ‘밖’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AI 캐릭터 ‘아락스’는 ‘그런 것들이 밖에는 많나요?’라며 인간 플레이어에게 질문한다. 정해진 책 스토리대로라면 ‘아락스’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한 모험과 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꿈을 이루는 인물이 되어야 했다. 즉, ‘아락스’는 독자를 만족시키고 독자를 위한 캐릭터, 도구로만 존재해야 했다. 신체가 없는 ‘아락스’는 책 속에만 머물러 있어야 했지만 자신이 닿지 못한 다른 세계 ‘밖’을 동경하기에 ‘유진’과 마찬가지로 고민과 방황 끝에 책 속에서 자살을 한다.

소설 〈두 세계〉는 ‘노랜드’ 시스템 운영자 ‘유라’가 자신의 쌍둥이 ‘유진’에 대해 회상하는 장면과 ‘유라’가 가상현실 공간을 탈출한 ‘아락스’를 추적하는 이야기가 교차로 서술되고 있다. 이때 ‘유라’가 발견한 것은 ‘유진’과 ‘아락스’의 존재적 취약성이다. 책 바깥을 욕망하는 ‘아락스’는 정신적 실체를 지니고 있지만 물질적 실체인 신체가 없기에 취약하다. 세계와 자신이 불합치하다고 여기는 ‘유진’은 ‘여기’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정신적 실체가 늘 ‘밖’을 향해 있었기에 취약하다. ‘유라’는 ‘유진’이 죽음 전에 남긴 말 ‘가끔 스스로 정신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으나 ‘유진’과 같이 취약한 ‘아락스’의 도주를 추적하면서 그 뜻을 점차 이해해 간다. ‘유라’는 AI 캐릭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아락스’가

와 접촉한다. ‘신규영’은 책을 읽다가 ‘아락스’의 욕망을 눈치채고 자신의 신체를 ‘아락스’에게 제공한다. 이로 인해 가상현실 공간 ‘노랜드’는 오류가 나게 되고 ‘유라’가 그 원인을 밝혀내는 과정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인간의 몸에 들어가 원래 몸의 주인을 내몰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지만 ‘유라’는 인간의 신체를 획득한 ‘아락스’가 현실 세계에 남는 것을 묵인한다.

포스트휴먼 관계에서 요점은 상호 관계를 통해 본성을 혼종화하고 변화시켜 중간 지대를 드러내는 변형과 공생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Braidotti, 2015: 106). 비정상, 장애, 인간 아닌 존재가 뒤섞이면서 타자화된 신체는 그 취약함으로 연대할 수 있게 된다. 소설 속 가상 공간 ‘노랜드’는 인간과 비인간, 장애와 비장애, 정상과 비정상이 만나는 중간 지대이다. 이질적인 종을 횡단하는 ‘함께-되기’의 흐름 안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는 무의미해진다. 인간 ‘유진’과 AI 캐릭터 ‘아락스’는 서로의 취약성으로 ‘유라’가 만든 가상 공간을 점점으로 종을 횡단하여 접속한다. 결과적으로 이 소설은 인간 육체를 얻은 인공지능이 포스트휴먼으로 자립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통해 정신과 육체를 구분하는 근대적 사유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는다.

천선란의 단편집 〈어떤 물질의 사랑〉과 〈노랜드〉에는 다양한 개체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⁷⁾ 그들은 ‘유진’과 ‘아락스’처럼 자신이 속한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며 자신을 둘러싼 경계에 의문을 제기한다. 소설 〈레시〉에는 손가락이 여섯 개인 지구 아이와 외계 생명체, 〈흰 밤과 푸른 달〉에는 외계 생명체와 그에 맞서는 신체 강화 인간, 〈뿌리가 하늘로 자라라는 나무〉에 부상 당한 군인과 외계 생명체가 뒤섞여 있다. 이들은 경계선 위에서 위태롭지만 세계의 구조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한다. 유사한 환경에 처한 서로 다른 종의 배치를 통해 작가는 낯설고 이질적인 신체의 타자화와 그에 가해지는 폭력적 시선을 고발하며 아울러 여러 개체가 뒤섞이는 과정에서 그들이 걸도는 존재가 아니라 더 멀리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생기있는 개체들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단편 소설 〈제, 재〉는 한 몸에 이중인격을 지닌 존재의 이야기이다. 인격 ‘재’는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며 지적 능력을 갖춘 촉망받는 과학자이지만 인격 ‘제’는 예술적인 면을 제외하고는 탁월한 면이 없다. 사회적 역할이라는 기준을 정해 놓고 능력이 탁월한 한 인격만을 인정하려는 가족은 정상과 비정상,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분명히 한다. 부모는 자식이 ‘재’ 인격일 때만 연락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락 하지 않는다. ‘재’는 억지로 잠을 자지 않아 ‘제’의 인격을 깨우지 않는다. 점차 ‘재’로 깨어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반면 ‘제’로 활동하는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소설에서 ‘재’의 삶만이 인정받고 ‘제’의 존재는 감추어

7) 단편집 〈노랜드〉에 〈흰 밤과 푸른 달〉, 〈바키타〉, 〈푸른 점〉, 〈제, 재〉, 〈이름 없는 몸〉, 〈두 세계〉, 〈뿌리가 하늘로 자라라는 나무〉 등이 수록되었다. 단편집 〈어떤 물질의 사랑〉에는 〈레시〉, 〈어떤 물질의 사랑〉, 〈그림자놀이〉, 〈두하나〉 등이 수록되었다.

진다. 이 소설은 두 인격의 차이가 교차로 서술되어 있어 정상으로 간주 된 인격과 비정상으로 간주 된 인격에 가해지는 외부의 시선이 일삼는 차별과 폭력성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다. 작가는 새로운 인물을 통해 이분법적인 경계 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냥 재가 유별나게 빠르고 특별한 거지 네가 못한 게 아니야. 너는 억지로 재의 속도에 같이 얹혀살고 있으니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지. 네가 재 속도에 맞춰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버겁지. (<제, 재> 157쪽.)

소설에서 ‘제 재’의 동생 ‘선’만이 비정상으로 구분되는 ‘제’의 삶을 인정해 준다. 동생은 두 인격 사이에 서로 다른 속도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한쪽이 다른 쪽에 억지로 맞추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며 ‘제’에게 그러한 의견을 전한다.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애초에 없었다면 두 인격 사이의 불균형적인 관계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둘의 차이를 인정할 때 ‘제 재’의 삶은 수정, 보완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러한 차이를 결핍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세상은 비정상으로 간주 되는 ‘제’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살해하려고 한다. ‘재’는 자신이 개발한 연구 결과를 자신의 신체에 스스로 적용해 ‘제’의 인격을 영원히 지우려 한다. 이때 연구소 직원들이 ‘재’의 명령대로 움직이며 인격 살해에 동참한다. 부모 역시 한쪽 인격에만 연락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아 정상으로 간주 되는 ‘재’ 주도의 인격 살해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차별과 폭력이 그대로 벌어지게 두지 않는다. 인격 살해에 동참하지 않는 ‘제 재’의 동생 ‘선’의 도움으로 ‘제’의 인격은 살아남게 된다.

장애와 같이 타자화된 존재를 구분해 내며 보호 및 치료, 관리의 목적으로 자행되는 인간의 차별적 태도를 천선란의 소설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편 소설 <레시>의 경우, 손가락이 여섯 개인 아이 ‘기주’를 상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는 의사 눈에서, 장애 아이를 그저 방치하는 아빠의 행동에서 장애 신체는 불행한 것, 버려져야 할 것으로 대상화된다. 작가는 이러한 차별적 시선은 결국에 비극적 결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주’의 죽음을 통해 그려낸다. ‘기주’의 엄마 ‘승혜’의 선택지는 방치된 아이를 자신이 근무하는 남극으로 데리고 오는 것밖에 없었다. 아이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장소(소설에서는 한국)에서 설 자리가 없었기에 남극으로 내몰리게 되어 남극을 자신이 머물러야 할 자신의 영토로 생각한다. 결국 그는 남극에서 사고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

소설 <레시>에서는 ‘기주’뿐만 아니라 외계 생명체 ‘레시’도 지구 생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의 설 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다. 아이의 죽음 이후 ‘승혜’는 지구의 바다 생태계 복원을 위해 새로운 행성 탐사를 가게 되고 그곳에서 외계 생명체 ‘레시’를 마주한다. 지구

정부는 탐사대에게 ‘레시’를 포획해서 지구로 귀환할 것을 명령한다. 하지만 ‘레시’에게서 여섯 개의 손가락을 본 주인공 ‘승혜’는 자신의 죽은 아이와 외계 생명체를 동일시 하게 된다. 이때부터 소설은 ‘승혜’가 아이를 회상하는 장면과 ‘레시’를 관찰하는 장면이 교차로 제시된다. 현실과 꿈,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면서 ‘승혜’는 지구 정부에 ‘레시’ 포획 명령 철회를 요청한다. 그녀가 느끼기에 ‘레시’는 자신의 세계에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죽은 아이가 장애 신체라는 이유로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죽게 된 것처럼 ‘레시’ 역시 인간과 다르다는 이유로 연구 대상으로 채집되어 자신의 공간을 벗어나게 되면 죽게 되리라는 것을 ‘승혜’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처럼 소설 〈레시〉는 우주라는 공간에서 ‘승혜’라는 인물을 접점으로 그녀의 아이 ‘기주’와 ‘레시’가 서로 뒤섞이면서 비정상적으로 간주 되는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성이 확인된다. ‘승혜’는 ‘레시’가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고 이 행성에서 살아가야 할 주인임을 밝히기 위해 홀로 탐사를 강행한다. 그 결과 ‘기주’와 달리 ‘레시’는 자신의 자리를 잃지 않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천선란 소설에서 서로 다른 종들이 뒤섞여 있다. 각각의 종들은 타자화되었기 취약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소설 〈두 세계〉에서 ‘유진과 아락스’, 〈레시〉에서 ‘기주와 레시’, 한 몸에서 두 인격이 공존함으로써 불완전한 〈제, 재〉의 ‘제와 재’, 모두 취약한 존재들이다. 이때 천선란은 〈두 세계〉의 ‘유라’, 〈레시〉의 ‘승혜’, 〈제 재〉의 ‘선’과 같은 인물을 설정했다. 이들은 소설 속에서 취약한 개체들이 존재를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취약한 존재들은 개체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받고 차별받거나 희생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욕망을 가진 인공지능 ‘아락스’는 책을 벗어나 신체를 갖게 되었고 비정상적으로 간주 된 인격 ‘제’는 세계로 나와 존재를 유지했다. 마찬가지로 외계 생명체 ‘레시’는 자신의 행성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었다. 천선란의 소설에서 취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인물과 그들의 태도가 바로 포스트휴먼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장애 신체의 연대를 통한 주체성 복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여러 개체의 뒤섞임의 양상은 장편 소설 〈천개의 파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천개의 파랑〉은 보다 다양한 시점의 교차 서술을 통해 뒤섞임의 양상이 앞서 살핀 단편 소설보다 더 복잡하다.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 개체가 서로에게 반응하며 다른 개체와 관계 맺는 과정을 상세히 드러냄으로써 이 소설은 중간 뒤섞임의 의미가 가시화된다. Haraway(2019: 25)는 타자들이 서로의 취약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에

주목해 반려종들과의 거듭되는 관계 맺기와 변화로 세상은 새로운 종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여 종들 간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인간중심적인 자기 동일성을 기반으로 한 인간은 멸망하지만 관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혼종적 주체들은 그 생생함으로 불멸하기에 다양한 종간의 관계 맺기는 포스트휴먼에게 있어 필수 조건이 된다.

〈천개의 파랑〉에서 소아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은혜’, 너무 빨리 달려 다리에 무리가 생겨 걷기조차 힘든 말 ‘투데이’, 말에서 떨어져 부서져 버린 인공지능 로봇 기수 ‘콜리’는 모두 보행이 어렵다. 세 개체는 서로 다른 종에 속해 있지만 취약한 이들이 만들어 가는 관계 맺기의 서사에서는 인간, 로봇, 동물의 종을 구분하지 않으며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관계 형성을 통해 〈천개의 파랑〉에 등장하는 여러 개체들은 종의 연대를 통해 주체적인 새로운 종으로 거듭나게 된다.

〈천개의 파랑〉에서 ‘은혜’는 휠체어를 타고 등하교를 한다. 기술 발달의 혜택으로 ‘은혜’는 인공 보철물을 이용해 남들과 똑같이 걸을 수 있었지만 ‘은혜’ 가족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수술비용 문제가 되었다. 결국 ‘은혜’는 휠체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장애와 가난을 향한 측은한 시선, 안쓰러운 눈빛을 받아 언제나 혼자 툭 떨어진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은혜’는 중학교에 다닐 때 ‘주원’으로 인해 그러한 소외감을 잠시나마 지울 수 있었다. ‘은혜’는 ‘주원’과 등하교를 함께 하면서 행복해했다. ‘주원’이 ‘은혜’와 가깝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역시 취약한 신체를 지녔기 때문이다. ‘주원’은 인공렌즈 삽입술을 받지 않아 전교생 중 유일하게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는 선천적 유전성 질환으로 인해 인공렌즈 삽입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트랜스 휴머니즘 입장에서 보면 기술은 인간 신체를 강화하기에 인류의 낙관적인 미래를 기대하지만 강화된 신체와 그렇지 못한 신체를 구분하기에 또 다른 차별의 소지가 있다. 소설에서 도수가 있는 안경을 착용한 사람이 도태된 자로 취급받는 상황은 기술 수혜를 기준으로 차별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한편, 소설에서 ‘은혜’와 ‘주원’의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하는데 ‘은혜’와 ‘주원’을 이어주는 결핍이라는 동등성이 깨지기 때문이다. ‘주원’이 미국에서 인공렌즈 삽입술을 받고 ‘은혜’와 다른 범주에 들어서고자 하는 것은 기술적 수혜를 통해 장애를 극복해 보고자 하는 선택이었다. 이처럼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할 경우 기술 혜택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은 계속해서 차별을 받기 마련이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조의 모순에서 비롯되는 장애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천선란은 다양한 종들을 뒤섞어 소설 속 ‘은혜’가 받아야 했던 상처,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지워 가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

〈천개의 파랑〉에서 결핍은 종간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조건이다. ‘주원’이 다른 차원

으로 가버리게 되자 ‘은혜’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학교를 그만둔다. 인간들 사이에서 ‘은혜’는 설 자리가 없었다. 그런 ‘은혜’에게 경주 마 ‘투데이’는 ‘대나무 숲’과 같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다. Braidotti(2015: 178)는 인간중심주의적 사회에서 타자로 전락해 왔던 동물, 지구, 기계 등이 인간과 유사한 환경이 놓인 동등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포스트휴먼 주체가 출발한다고 하였다. 인간들의 욕망을 위해 경주에서 앞만 보고 내달려야 했던 ‘투데이’는 태어난 지 3년밖에 안 되었지만 걷기조차 힘들어 경주마로의 가치가 없기에 폐사 처리될 운명에 놓이게 된다. ‘은혜’가 ‘투데이’를 살리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그녀는 비록 종은 다르지만 자신과 유사한 처지에 놓인 존재로 ‘투데이’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투데이의 얼굴을 두 팔로 감싸 끌어안았다. 억울했다. 자신이 억울한 것인지 투데이의 억울함을 대리로 느끼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은혜는 가슴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천개의 파랑> 215쪽)

인용문처럼 누구의 억울함인지 모르게 인간의 장애와 동물의 장애는 뒤섞여 있다. 인간에 의해 이용만 당하다 죽음을 앞둔 동물은 쓸모가 없다. 역할이 다했기에 다른 경주마와도 구분되어 마방의 한 자리조차 차지할 수 없다. 소외되고 어느 공간에도 소속될 수 없는 존재다. 인도가 아닌 차도에서 휠체어를 몰며 등교해야 했던 ‘은혜’ 역시 비장애의 공간에 속할 수 없어 늘 외롭기 마찬가지였다.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우주에서 사람만 이렇게 잔인한 거 같아요.’라며 ‘은혜’는 정상성의 ‘괜찮음’이 과연 괜찮은 것인지, 오히려 장애를 향한 차별과 폭력이 비정상이 아닌지 의심한다. 이렇게 <천개의 파랑>에서 인간과 동물의 장애가 뒤섞임으로써 이질적인 존재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화하게 된다. 장애가 개인의 문제, 극복의 대상이 아니고 장애에 대한 편견이 극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간다.

<천개의 파랑>에서 설 자리를 잃은 존재는 ‘은혜’와 ‘투데이’ 뿐만이 아니다. 소설 속 다른 존재들도 결핍, 파손, 실패, 상실, 얽매임과 같은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경주마 ‘투데이’의 기수 로봇 ‘콜리’는 다른 기수 로봇과 차이가 있다. 인간의 실수로 딥러닝 기술 침이 탑재되어 ‘콜리’는 좁은 기수 방과 바깥 세상을 구분할만큼 성능이 뛰어나다. 이에 ‘콜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과 사유를 한다. 예를 들어 말 ‘투데이’와 호흡을 맞추며 생명체의 호흡에 대해서 고민하고 스스로 단어의 의미를 탐구하고 실제로 입증해 보려고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로봇의 본질은 변화해 간다. 말 ‘투데이’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낙마하는 ‘콜리’의 행위는 자신을 위한 것도 인간을 위한 것도 아니다. 동물이라는 생명체를 살리기 위한 자기희생

이었다. 애초에 프로그램된 대로라면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딥러닝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콜리’는 인간과 자연스럽게 뒤섞이면서 스스로 학습하고 어느 영역에 속해 있다고 규정할 수 없는 개체로 변화해 간다. 인간을 닮아가기도 하고 인간의 사고 경계를 벗어나기도 한다. 로봇 공학 제3원칙에 따르면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인간을 보호해야 하며 자신을 폐기할 수 없다. 하지만 ‘콜리’는 그러한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를 위해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폐기함으로써 로봇의 역할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주체로 거듭나게 된다.

‘콜리’가 이렇게 변하게 된 데는 ‘연재’와의 접촉이 영향을 끼쳤다. ‘콜리’는 낙마로 인해 폐기 처분 위기에 몰렸지만 ‘연재’의 도움으로 새로운 신체를 얻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연재’는 모델명 ‘C-27’ 대신에 ‘콜리’라는 이름을 로봇에 붙여준다. 또한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기수 로봇의 다리는 가벼운 탄소 섬유 재질로 만들어졌지만 ‘연재’는 ‘콜리’에 알루미늄 재질의 보다 무거운 다리를 부착했다. ‘연재’를 거쳐 간 ‘콜리’는 획일적으로 제작된 기수 로봇이 아니다. 한 개체로의 특수성을 확보하게 된다.

한편, ‘콜리’는 인간과 뒤섞이면서 ‘은혜’의 신체 결핍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한다. ‘은혜는 신기한 인간이다. 다른 인간들과 다르게 기구를 이용해 움직인다. 능수능란하고 힘차다.’(211 쪽). 이처럼 ‘콜리’는 ‘은혜’를 측은하거나 안쓰럽게 보지 않고 ‘다름’과 ‘힘참’으로 인식한다. ‘은혜’의 신체는 그 자체로 능수능란하고 힘차기에 교정도, 강화도 필요 없다. ‘콜리’의 시선에서 ‘은혜’의 장애는 결핍이 아닌 그 자체의 특수성으로 의미화 된다.

〈천개의 파랑〉에서 ‘은혜’의 동생 ‘연재’ 역시 취약하기는 마찬가지다. ‘연재’는 보통 아이와 달랐다. 그녀는 열한 살 때 계주 레일에서 이탈해 교문 밖을 뛰쳐나갔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만큼 멀리 뛰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다. 그 사건 이후 ‘연재’는 자신이 속한 세계에 만족하지 못한다. 특히 ‘연재’는 소프트 로봇 연구 프로젝트 대회의 최종 면접에서 기술 발전의 혜택이 무언인지에 대해 답을 하지 못했다. 그 답은 기술 혜택의 현장을 보고 온 유학과 학생만이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소설에서 기술 혜택을 받거나 기술 발전을 확인한 자는 그렇지 못한 자와 구분된다. 대회 이후 ‘연재’는 좌절감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

상처받은 ‘연재’는 자신의 꿈을 접고 무의미한 일상을 살다가 ‘콜리’를 만나면서 달라진다. ‘연재’는 알루미늄에서 느껴지는 그 차갑고 이질적인 느낌을 좋아했다. ‘연재’는 자신의 취약성으로 이질적인 것을 수용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무엇보다 ‘연재’는 폐기 직전의 ‘콜리’를 마주한 처음부터 하나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재’가 ‘콜리’의 몸체를 재구성하려는 이유는 스스로 기술 혜택의 실체를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로봇을 하나의 존재 자체

로 보고 있다. 로봇을 고쳐 수단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이는 기술 발전이 인간 신체의 강화 및 극복의 방향으로 전개되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로봇 연구 프로젝트의 최종 면접에서 연재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연재’는 ‘콜리’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인간을 위한 로봇 개발이 아닌 로봇 자체를 위한 개발이라는 자신의 가치관을 보다 확실하게 구축하며 좌절감을 극복해 간다.

〈천개의 파랑〉에서의 인간, 로봇, 동물 등의 다양한 개체는 연대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다양체 되기를 실천했다.⁸⁾ 천선란 소설 속 인물은 신체적으로 파손되고 결핍된 부분이 있다. 이러한 취약성이 인물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동력으로 작동한다. 이때 정상과 비정상의 위계성에 가려졌던 결핍된 신체의 본성은 변화하여 새롭고 생동적인 포스트휴먼 주체로 거듭나게 된다.

III. ‘정상성’ 해체의 전복적 의지

1. ‘정상성’의 모순과 허약성 들추어 내기

천선란 소설에 등장하는 개체들은 장애와 비장애,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서 이질적인 종들끼리 접속하며 종의 경계를 횡단한다. 앞선 장에서 살핀 것처럼 이들은 서로의 취약함에 공감하고 연대한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구분과 차별이라는 이분법적 구조와 남성 중심의 폭력적 세계의 구조적 모순과 허약성을 고발한다. 허윤(2021)에 따르면 정상과 비정상의 지속적인 구분 짓기는 결과적으로 그 차이를 생산해야만 시민권을 지켜낸다는 욕망에서 기인한다. 장애인이 비정상의 경계 안에 있어야 그 차이를 만들어 낸 주체는 유리해질 수 있다. 이는 장애가 실제적인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일부 몸을 비정상적으로 간주하려는 사회적 해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천선란의 소설은 차별을 통해 만들어진 세계의 모순과 허약성을 끊임없이 들추어내고 있다. 단편 소설 〈어떤 물질의 사랑〉은 ‘라현’이 자신이 다른 존재들과 다르게 배꼽이 없다는 차이를 인지하면서 자신의 실체가 외계 생명체라는 사실을 알아간다는 이야기이다. ‘라현’은

8) 들뢰즈·가타리는 다양체들과 연결 접속되었을 때 본성상의 변화가 가능해지는데 ‘다양, 그것을 만들어야만 한다’를 명제를 내세워 다양체(multiplicité)되기를 강조하였다. Guattari, P., & Deleuze, G. (2001), 천개의 고원(김재인 역), 서울: 새물결, 18.

알에서 태어나 배꼽이 없었으며 두 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남성을 사랑하면 남성이 되고 여성을 사랑하면 여성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라현’은 애초에 자신 같은 사람이 많아서 성별로 자신을 특정 지을 수 없었다면 지구에는 지금과는 다른 기준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인간은 정상으로 간주 되는 범주에 들기 위해서는 역지로 자신을 맞추어야만 한다. ‘여자 같은’, ‘남자 같은’이라는 말이 기준 및 경계가 되어 그 안에 실체를 가둔다. 작가는 ‘라현’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여러 존재를 만나며 성장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은 사회가 만들어 낸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근대 이후 지배계급의 이분법적 세계관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해 냈다. 정상의 범주에 속한 지배계급은 자신과 차이가 있는 다른 자를 비정상이라 하여 그들을 지배와 통치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시선이 배제되었을 때 새로운 인식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Braidotti, 2015: 175). 천선란은 이분법적 세계관에 의해 구분된 세계의 모순을 들추어내기 위해 장애의 조건을 뒤집어 놓는다.⁹⁾ 그런가 하면 초능력자가 편견을 넘어 우월한 종으로 전환되는 서사, 외계생명체가 지구 생명체보다 신체적으로 우월한 서사 구조를 만든다. 이 구조에서는 정상으로 판단되었던 비장애가 상대적으로 열등하게 그려지게 된다. 결국 정상성이라는 개념이 해체되고 그 허위성과 모순이 파헤쳐진다.

천선란의 많은 작품에서 바깥을 지향하는 사유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정상성의 허위성을 해체하려는 ‘라현’과 같은 존재가 항상 불순하고 비정상으로 간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현’이 제시하듯이, ‘언제나 밖에 있는 자들이 그 장벽을 없애네요.’(〈어떤 물질의 사랑〉, 147쪽)라는 말처럼 장벽을 없애기 위한 해결책은 내부가 아닌 경계 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¹⁰⁾

천선란 소설에서 외계 생명체는 정상성을 해체하여 지구 행성의 구조적 모순과 허약함을 들추어내는 역할을 한다. 소설 〈흰 밤과 푸른 달〉, 〈바키타〉, 〈두하나〉, 〈뿌리가 하늘로 자

9) 〈그림자 놀이〉에서는 ‘깨진 거울 수술’을 통해 인류가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게 된다는 전제하에 소설이 진행된다. 공감 능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현재 아스퍼거 증후군은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지만 이 소설에서는 이를 역으로 뒤집어 놓았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개인의 감정에 충실할 수 있기에 정상일 수 있고 타인의 감정과 시선에 의지해서 가짜 뉴스에 현혹되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이 비정상일 수 있다고 소설의 주인공은 ‘깨진 거울 수술’을 지지한다. 한편, 아스퍼거 증후군이 2022년 장애의 한 종류에서 자폐 스펙트럼의 일부로 여겨지게 되었는데 이는 장애, 질병의 분류가 사회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10) 〈두세계〉에서는 정상성의 바깥, 책 속의 바깥을 욕망한다. 〈제, 재〉는 정상성의 신체를 벗어나는 비정상 인격의 탈출을 〈우주를 날아가는 새〉와 〈푸른 집〉, 〈사막으로〉에서는 환경문제, 핵과 방사능 등으로 더 이상 지구 행성에 살 수 없는 인류가 우주를 향해 나아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라는 나무>에서는 외계생명체의 지구 행성 침공이 그려진다. 지구의 정상/남성/동일자들은 외계 생명체에 비해 신장, 근육, 힘의 열세에 놓여 있어 그들만의 힘으로 패색이 짙은 전세를 뒤집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남성들은 낮은 외계 생명체에 접근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낙약하게 그려져 있다.¹¹⁾

단편 소설 <바키타>는 3미터 정도의 신장과 검은 피부, 긴 팔을 지닌 외계 생명체 바키타가 지구를 점령하게 되자 인류는 지구를 버리고 탈출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소설은 정찰을 위해 지구에 온 인류의 보고서 형식으로 전개된다. 지구를 탈출하지 못하고 남게 된 인류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화한다. 인류는 ‘바키타’와 공생을 선택한 ‘문명의 인간’과 숲속에서 자체적으로 ‘바키타’에게 종속되지 않는 삶을 선택한 ‘숲속의 인간’으로 각기 나누어진다. ‘숲속의 인간’은 구강 구조의 변화, 손톱과 발톱의 강화처럼 야생에서 살아남도록 강하게 진화했지만 언어적으로 정찰대원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언어적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숲속의 인간’은 언어 장애가 있는 것으로 정찰대원에게 해석되지만 정작 ‘숲속의 인간’ 사이에는 소통의 문제가 없다. 지구를 탈출한 인류와 소통이 되지 않을 뿐이다.

소설 <바키타>에서 ‘문명의 인간’은 도시에 거주하고 정찰대원과 정상적 언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하며 외모도 정찰대원과 비슷하다. 정찰대원의 시선에서는 ‘문명의 인간’이 보편적 인간이고 정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명의 인간’은 ‘바키타’와의 절대적인 힘의 차이를 느끼고, ‘바키타’에 종속된 형태로 삶을 유지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 소설은 정상으로 간주 되는 인간이 사실은 가축과 같은 종속적 위치로 전략했다는 설정을 통해 우열 구분의 모순성과 우열 관계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독자에게 환기시킨다. 보편적 인간은 암묵적으로 남성, 백인, 도시화, 표준 언어 사용, 이성애자, 승인된 정치조직의 완전한 시민으로 가정되어 있다(Braidotti, 2015: 87). 소설 <바키타>에서 ‘문명의 인간’이 보편적 인간의 범주에 속해 있더라도 외계생명체 ‘바키타’의 가축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점은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사회적인 구분이며 모순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소설의 구조는 비장애인이 스스로를 온전하고 주체적이며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사고를 뒤집어 놓는다.

11) ‘별은 그저 창이었고, 이겨야 하는 건 창을 쏜 몸. 총도 뚫지 못하는 두꺼운 가죽과 인간의 운동력으로 잡을 수 없는 속도, 그리고 당해낼 수 없는 힘의 차이, 인류에게 필요한 건 힘이였다.’ <흰 밤과 푸른 달> 13쪽.

‘그것은 번데기 같았다. 부화되기만을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인간들은 처음으로 숨을 죽이고 하늘을 바라봤다. 고평하게, 기원전의 인류는 하늘을 이런 모습으로 숭배했을까.’ <두 하나> 207쪽.

2. 도구와 신체의 새로운 배치 전략

단편 소설 〈이름 없는 몸〉은 천선란 소설의 전복적 사유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 작가는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폐쇄적 마을과 마을 밖의 세계를 구분해 놓고 있다. 외부와 왕래가 쉽지 않은 마을은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만큼 세계 인식의 폭이 좁다. 노인들은 몸에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며 심지어 아이의 태반, 어린아이의 시신에도 관심을 갖는다. 그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면 동물, 어린아이 가릴 것 없다. 여성은 마을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돌아온 남성들은 범죄자이거나 폭력적이다.

이와 달리 주인공 ‘나’가 마을을 떠나 맞이하게 된 세계는 폭력적이지 않다. 무엇보다 마을 밖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 ‘나’가 일하는 우체국의 국장과 직원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나’를 남으로 여기지 않는다. 집을 구하는 일부터 세세한 일들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청춘의 미래를 응원해 준다. 우체국에 새로 온 직원은 ‘나’와 같이 살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간다. 이처럼 마을 밖의 공동체는 폐쇄된 ‘나’의 고향 마을과 달리 이상적으로 그려져 있다.

‘나’는 마을을 벗어나기 전 이런 세계를 항상 꿈꾸었다. 태어나고 자란 마을에서 ‘나’의 유일한 친구인 ‘너’는 가정 폭력의 희생자였으며 ‘나’ 역시 그것을 지켜보며 ‘너’의 아버지 살해와 마을 사람들에게 대한 복수를 항상 다짐했다.

충열을 붙잡아 올렸다. 몸이 기억하는 감각을 믿는 것이다. 팔과 총이 수평이 되었을 때를. 개머리판과 어깨를 맞댄 너는 천천히 움직여 네 팔과 총열이 완전히 수평이 되었을 때를 찾았다. (<이름 없는 몸> 169~170쪽)

인용문처럼 두 소녀는 인형을 조준하며 총의 감각을 몸이 기억하도록 사격 연습을 한다. 감각을 통해 두 소녀는 총과 접촉한다. 소녀와 접촉하기 전에 이 마을에서 총은 남성들만의 한정적 도구였다. 하지만 소녀의 몸에 기억된 총은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다. 여성 신체의 감각에 지각된 총은 여성의 도구, 소유물이 된다. 이 소설에서는 남성_총에서 소녀_총으로 뒤바뀌는 양상은 줌비와 대립하는 장면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줌비 때를 마주했을 때 남성 ‘순경’은 몸을 떨며 방아쇠를 제대로 당기지 못한다. 이에 비해 ‘나’는 몸이 기억하는 감각으로 줌비의 머리를 정확히 조준해 사격을 가한다. 총의 소유권은 사용하지 못하는 남성 순경에서 사용 가능한 소녀로 뒤바뀐다.

총과 소녀의 몸이 접촉되기 전 이 마을에서 소녀의 존재는 위태로웠다. ‘너’는 가정 폭력

에 시달려야 했으며 ‘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낯선 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아야 했다. 남자들이 ‘패배감’, ‘성취감’, ‘사명감’(<이름없는 몸>, 194쪽)으로 행하는 폭력에 마을에서 여성과 아이들의 울음 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마을은 아이들이 태어나서도 안 되고 자라서도 안 되는 공간이었다. 아이들에게는 죽음이 항상 따라다녔다. 이런 면에서 ‘나’가 충을 싸 맞춘 것은 좀비였지만 그 의미는 확장된다. 좀비처럼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살아 먹는 노인들, 그러한 노인들이 살고 있는 폐쇄적인 마을,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세상을 믿어버리는’(<이름없는 몸>, 241쪽)세계를 향해 소녀는 충을 쏘았다.

신체가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신체의 세계 참여 방식이 달라진다(심귀연, 2015: 321). ‘나’가 마을을 벗어나 세계로 나왔을 때 세계를 상징하는 우체국 직원들은 ‘나’를 배려한다. 하지만 그러한 배려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마을은 여전히 그대로 폐쇄적이고 그 안의 마을 사람들은 좀비처럼 서로를 뜯어먹으며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을 세계에 고발하고 또 좀비로 변해버린 정상성을 살해하기 위해 소녀는 ‘충’ 도구와 결속한다. 이때 소녀의 신체는 확장되고 사회에 참여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거듭나게 된다.

천선란은 여러 작품을 통해 군인, 전사, 전투원을 여성 신체로 재현한다.¹²⁾ 새로운 접촉을 통해 신체 강화된 여성 인물은 외계 생명체와의 전투, 지구 밖으로 도주 과정에서 외부적 평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남성/여성의 이분법적 경계를 허문다. 천선란 소설의 여성이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남성 폭력의 희생자가 되지 않으며 성 역할의 테두리에 갇혀 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포스트휴먼적인 주체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기 때문이다.

기존 세계를 거부하는 소녀, 여성의 반란 및 전복적 행위는 장애의 차별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소설 <천개의 파랑>에서 ‘은혜’는 언제나 비장애인에게 의해 삭제되었다. 그녀가 비장애인들과 함께 공존할 자리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장애가 있는 신체는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진다. 이때 도움을 받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게 선행한 웃음으로

¹²⁾ 천선란은 장편 <무너진 다리>에서 여전사 ‘수잔’이라는 인물을 통해 강인함과 문제 해결 능력, 종간의 유연한 관계 맺기를 실험했다. 단편소설에서 여전사는 주체적으로 묘사된다. 소설 <흰 밤과 푸른달>의 ‘명월’은 늑대 유전자와 결합된 신체 강화 인간이자 외계생명체와 대적하는 전투원이다. ‘명월’은 학창시절 학교에서 남자아이들을 싸우고 이겼는데 그때마다 ‘나는 이게 지키는 수단이야’라는 말을 했다. 소설 <부리가 하늘로 자라는 나무>에서도 외계생명체와 싸우는 군인인 ‘이인’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타인의 평가를 받지 않고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이라 파병을 지원했다.

보답해야만 한다. 소설에서 휠체어를 무작정 끌어주는 사람들에게 ‘은혜’는 화를 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서도 안 되었다. 배려를 수긍하는 ‘은혜’는 선함으로 갈등 상황에 놓이지 않지만 거부하는 ‘은혜’는 비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하기에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을 그녀는 체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걸 선의라고 생각했다. 은혜가 ‘알아요’라고 차갑게 말하거나 대꾸하지 않으면 자신의 선의를 무시한 못된 인간이 된다. 그럼 곧장 인상을 찌푸리거나 대놓고 혀를 차는 경우도 있었다. 웃어야 한다. 사람들이 은혜에게 바라는 건 어떤 불굴의 상황도 웃음으로 이겨내는 긍정의 힘이었다. (<천개의 파랑> 178쪽)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수용하는 방식은 비장애 중심적이다. 장애를 지닌 존재를 단순화시켜 대상화할 경우 장애 신체가 개별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수성은 무마되고 장애 신체는 ‘도움’과 연결되어 항상 피동적이게 된다. ‘은혜’가 위험하지만 인도가 아닌 차도로 휠체어를 끌고 다니는 이유는 인도가 잘못 설계되었다고 생각해서 내린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 때문이다. 하지만 비장애인은 평면적으로 장애를 인지하기 때문에 ‘은혜’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소설에서 인도와 차도는 비장애인의 기준에 의해 설계되고 배치되었다. 비장애 신체를 중심으로 배치된 도로에서 ‘은혜’는 보호받아야만 했고 그로 인해 실존적 자유를 상실해야 했다(심귀연, 2015: 320).¹³⁾ ‘은혜’는 비장애인의 평면적이고 폭력적인 선의를 무작정 받아들여만 한다. 이처럼 비장애는 장애가 자신들의 경계 내부에서 순응적일 때만 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은혜’가 장애를 느끼는 것은 걸을 수 없는 다리 때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차이를 만들고 그것을 기준으로 ‘은혜’를 포착하고 구별하기 때문이다. 비장애인의 권력이 ‘은혜’의 신체에 작동하기에 ‘은혜’는 시선이 느껴지지 않은 곳으로 숨기를 바랐던 것이다.

숨어버린 집 내부에서도 ‘은혜’가 불편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홈스쿨링을 결정하고 난 후 엄마는 주말에 ‘연재’로 하여금 ‘은혜’ 옆에 있기를 당부했다. 보호의 명목이지만 일방적인 비장애인의 관점이기엔 ‘은혜’는 여전히 결핍된 존재로 간주 되는 현상에 불편함을 느낀다. 결국 가족 내외부의 비장애 신체 자체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은혜’가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장애 신체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경주마, 로봇 기수와와의 만남은 ‘은혜’

13) 장애 신체는 지각하지 못하기에 결손, 결핍,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비장애인은 장애를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하여 장애에 보완, 도움을 통해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실존적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사물화하는 것이다.

의 장애 신체가 변화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은혜’는 ‘투데이’의 폐기를 미루고자 다음과 같이 마음 먹는다.

*지금이야말로 잠적을 끝낼 시기이며, 세상에 한 방 먹일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오랜만에 일기장을 펼쳐 은혜는 이렇게 적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지킬 수 있
다.(<천개의 파랑>190쪽)*

장애 신체를 지닌 다른 개체와 만나기 전 도망치거나 숨는 등 혼자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은혜’였다. 그런 그녀를 안쓰러워하는 가족과의 관계도 매끄럽지 못했다. ‘은혜’는 ‘투데이’의 장애가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을 알게 된다. 더 빨리 달리기 위해 기수의 무게를 줄였으며 결과적으로 경주마는 더 빨리 달리게 되어 다리에 무리가 가해진 사실을 알게 된다. ‘은혜’는 신체적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외부의 문제라는 것, 따라서 사회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경주마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마방 안에서 관리받고 통제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투데이’와 신체장애로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받는 대신 그것에 항상 감사해야 하며 웃음을 지어 보여야 했던 ‘은혜’는 비독립적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은혜’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경마장이 운영되는 비리를 파헤침으로써 스스로 세상의 편견과 폭력에 저항하며 독립하게 된다. 소설에서 ‘투데이’를 살리기 위한 ‘은혜’는 어느 누구의 감시를 받지도 통제를 받지도 않는다. 비장애인을 특권화하는 위계적 관계에서 벗어나 ‘은혜’의 신체가 주체적으로 자유로워지게 되는 계기는 한 가지 더 있다. ‘은혜’의 신체가 휠체어와 접속되었기 때문이다.

*‘리어카를 끌고 가는 연재와 그 옆에서 휠체어를 움직이는 은혜의 뒷모습은 마치
전투에 나가는 전사 같기도 했다.’(<천개의 파랑> 243쪽)*

인용문처럼 ‘은혜’는 인간 복희(수의사)의 눈에 ‘전사’로 그려진다. 로봇 ‘콜리’가 ‘은혜’의 휠체어를 관찰하며 내린 결론인 ‘능수능란’이라는 표현과 유사하다. 이렇게 휠체어는 ‘은혜’의 신체를 확장시켜 주면서 인간의 눈과 비인간의 눈이 뒤섞여 전복적 행위를 이끌어 내는 도구이다. ‘은혜’의 휠체어에서 일반적 장애에 낙인된 서사는 사라지고 전사라는 개별적인 의미가 생성된다. 이때 ‘은혜’는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욕망할 수 있다. 사랑에 대한 감정, 경주마를 살리기 위해 세상과 싸워보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독립적인 주체 ‘은혜’는 탄생한다.

장애 신체의 문제는 장애인의 권리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천선란의 소설에는 취약성을 공유하는 인간, 비인간은 종간의 긍정적 유대를 통해 포스트휴먼 주체로 거듭나게 된다. 그럼으로써 정상이라는 이름으로 구분된 기준을 무너뜨려 경계 해체의 전복적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IV. 나오며 : 포스트휴먼의 정상성 해체

지금까지 천선란 소설에 재현된 장애와 그 의미에 대해 살펴 보았다. 기술 발전에 따른 포스트휴먼적인 인간 변화는 인간과 장애 신체에 대한 기존의 사유에 변화를 가한다. SF 소설은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측, 재현하고 있는데 천선란 역시 환경, 우주, 인간 비인간 공존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보여왔다. 천선란의 단편 소설집 〈어떤 물질의 사랑〉과 〈노랜드〉에서 공통적으로 장애는 타자화되거나 경계 밖에 있는 존재들과 함께 그려진다. 작가는 장애 신체를 포함하여 외계생명체, 인공지능 및 로봇 개체, 좀비, 신체 강화 인간, 복제 인간 등 비인간 개체에 가해지는 구분과 폭력적 시선을 포착해 낸다. 천선란의 소설은 근대 이성의 이분법적 기준에 작동하는 건강한 신체 및 정상성이 과연 건강하고 정상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한다. 그녀의 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경계 내부에서 겪는 차별화된 폭력성을 견뎌야 하고 차별의 모순성을 지적하며 경계 밖을 지향한다. 동시에 타자화된 다양한 개체들은 서로의 취약성으로 이끌려 연대하여 새롭고 역동적인 행동을 취한다. 이를 통해 작가의 문학적 지향점이 타자화된 존재들의 주체성 회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간과 비인간의 흐릿해진 경계의 틈에 서 있는 천선란 소설의 개체들은 그 경계의 무의미함을 증명하며 경계 넘기를 감행한다. 책의 경계, 마을의 경계, 지구의 경계, 신체의 경계를 넘어서면서 정상성의 모순과 허약함을 들추어내고 정상과 비정상의 위계적 구조를 전복시킨다.

천선란 소설의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이 누려왔던 우월적 지위와 특권을 내려놓게 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대표적으로 환경문제, 인종 갈등, 빈부격차, 장애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특히 천선란 소설에서 포스트휴먼과 결합된 장애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 비장애의 기준에서 인식되는 장애는 보호, 수혜의 대상이자 수정, 관리의 대상으로 한정된다.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넘어서 장애는 대상화된 자신의 신체를 새롭게 바라보며 장애인의 욕망을 세계에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장애 신체의 욕망에 대해 비장애 신체는 불편해하고 편견을 지니고 있다. 비장애 신체는

자신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한정한다. 장애 신체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도움은 장애 신체의 욕망과 의지와는 무관하기에 폭력적이다. 천선란은 이러한 비장애 신체의 행동이 지니고 있는 위계적이고 폭력적인 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상성이 상대적으로 정상이라는 것, 정상성이 실제로는 모순과 허약함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소설을 통해 재현하고 있다. 그녀의 소설에서 외계 생명체를 비롯한 이질적 존재들은 상대적으로 정상으로 간주되는 개체보다 우월하게 그려져 있다. 이렇게 천선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외계 생명체는 인간과 뒤섞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인간 신체의 정상성을 전복하는 의미도 있다. 나아가 천선란은 비정상 개체가 스스로 전복적 의지를 드러내며 주체로 재탄생하는 서사를 구축한다. 신체와 도구의 배치를 새롭게 하여 소녀를 비롯한 여성 신체의 강인함을 부각시키거나 전사로 그려낸다. 장애를 보완하는 교정 도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장애 신체를 사회에 당당히 맞서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신체로 변화시킨다.

포스트휴먼이 된다는 것은 인간과 비인간이 갈등 관계에 놓인다는 의미가 아니다. 세계에 대해 무관심해지거나 탈인간화된다는 의미 역시 아니다.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과 연대를 통해 확대된 공동체 의식을 실천하는 새로운 방식을 의미한다. 천선란 소설의 의미는 첫째, 한국 SF 소설의 성장 속에서 현재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의 근원으로 이분법적인 경계 구분 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둘째, 다양한 개체들이 뒤섞인 수평적 관계가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을 문학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의식이 실천될 수 있는 미래 사회에 적합한 존재가 포스트휴먼, 혹은 포스트휴먼적 사고를 지향하는 개체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천선란 소설의 특징이자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미현 (2020).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여성과 테크노페미니즘-윤이형과 김초엽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9, 10-35.
- 김윤정 (2021).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휴머니즘과 장애. **여성문학연구**, 54, 77-107.
- 김윤정 (2022). 여성 SF문학에 나타난 장애와 포스트휴머니즘의 불구성. **이화어문논집**, 58, 83-119.
- 김윤정 (2023). 한국 여성 SF문학에 나타난 재야생화. **우리문학연구**, 79, 203-234.
- 김윤희, 서세림 (2024). 정보라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포스트휴먼 인공지능의 관계 맺기. **다문화 콘텐츠연구**, 47, 93-127.
- 박예은, 조미라 (2019). 포스트휴먼 시대의 여성 주체성. **철학탐구** 56, 153-179.
- 박인성 (2020). 한국 SF 문학의 시공간 및 초공간 활용 양상 연구-배명훈, 김초엽, 김보영의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 연구**, 77, 245-277.
- 서승희 (2019). 포스트휴먼 시대의 여성, 과학, 서사: 한국 여성 사이언스픽션의 포스트휴먼 표상 분석. **현대문학이론연구**, 77, 130-153.
- 신상규 (2014).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 서울: 아카넷.
- 심귀연 (2015). 신체와 장애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메를로 폰티와 푸코를 중심으로-. **철학논총**, 82, 305-324.
- 심귀연, 김문정, 김창식 (2024). 디지털 기술시대의 몸과 장애의 상황. **철학연구**, 171, 215-238.
- 연남경 (2020). 여성 SF의 시공간과 포스트휴먼적 전망-윤이형, 김초엽, 김보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79, 105-139.
- 우미영 (2014). 한국 현대소설의 '과학'과 철학적·소설적 질문-김보영과 배명훈의 SF를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55, 121-141.
- 이양숙 (2020). 한국소설의 비인간 전환과 탈인간중심주의. **한국문학과예술**, 34, 227-259.
- 이지연 (2023). 위기에 대한 사유와 SF의 대안적 상상력. **이화어문논집**, 61, 155-180.
- 임지연 (2023). 천선란의 SF에 나타난 '객관적 현상학'과 생태적 사유-천선란의 『나인』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88, 113-137.
- 진선영 (2022). 기술철학적 관점에서 본 SF 성장소설과 인간_비인간의 양상불-천선란의 〈천개의 파랑〉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87, 541-567.

- 진설아 (2022). 경계를 해체하는 한국 SF-김보영, 김초엽, 천선란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21(3), 75-95.
- 추혜진 (2020). SF 서사에서 나타나는 포스트휴먼과 새로운 주체로서의 가능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2), 95-102.
- 천선란 (2020). 어떤 물질의 사랑. 서울: 아작.
- 천선란 (2020). 천개의 파랑. 서울: 허블.
- 천선란 (2022). 노랜드. 서울: 한겨레출판.
- 허윤 (2021). 일할 수 없는 몸을 전유하는 페미니스트 SF의 상상력-김보영 소설을 중심으로 -. **여성문학연구**, 52, 10-35.
- Asimov, I. (2008). 아이로봇(김옥수 역). 서울: (주)우리교육.
- Braidotti, R. (2015). 포스트휴먼(이경란 역). 파주: 아카넷.
- Guattari, P., & Deleuze, G. (2001). 천개의 고원(김재인 역). 서울: 새물결.
- Haraway, D. (2019). 해러웨이 선언문(황희선 역). 서울: 책세상.
- Russ, J. (2020). SF는 어떻게 여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나(나현영 역). 옥천: 포도밭출판사.

논문 투고 : 2024.10.13.	논문 심사 : 2024.11.20.	게재 확정 : 2024.11.29.
---------------------	---------------------	---------------------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and Representation of Disability in Korean SF Novels : Focusing on Cheon Seon-ran's Novels

ChangMin Yoo*

The science fiction novels by Cheon Seon-ran,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study, discuss environmental issues, desires and imaginations for the universe, and the coexistence of humans and non-humans against the backdrop of a future society. Cheon Seon-ran's works are based on the attitude of critical humanism. She breaks down the boundaries between disability and non-disability and focuses on the subjectivity of disabled characters. Through this, she renews the perception of disability.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bled bodies and post-humans, focusing on Cheon Seon-ran's story. Many beings outside the boundary appear in Cheon Seon-ran's novels. Post-human are portrayed as superior to ordinary humans. Cheon Seon-ran mixes post-human entities with human beings who have been marginalized for various reasons, including gender and disability. Through this, she captures the process of reproduction of discrimination and violence that is transferred to marginalized beings. Women and disabled people who connect with and are in solidarity with posthumans question the discriminatory and violent social structures and overcome the social prejudices imposed on them.

Keywords: disability, women, non-human, post-human, otherization,
coexistence and symbiosis, science fiction

*Professor, Division of Literature, Dong-eui University